

승부욕이 승리를 만들었다

홈장 첫 승으로 연변팀 활짝 웃었다

— 왕박호의 프로리그 데뷔골로 석가장팀에 1 대 0



이날 경기의 유일한 결승골을 터뜨린 왕박호, 본인 프로리그 데뷔골이 되었다.

승부욕이 승리를 만들었다. 애타게 바라던 홈장 첫 승을 거두며 연변팀이 활짝 웃었다.

4월 13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석가장공부팀 (이하 '석가장팀')을 1대0으로 격파하며 강팀에 강한 연변팀, '마귀홍장'다운 홈 승리를 장식했다.

연변팀은 4-2-3-1 전형으로 시작했다. 최전방에 로난을 포진하고 왕봉, 한광휘, 이보, 아블레다, 서계조, 리세빈, 리호걸, 허문광, 천장걸로 선발을 꾸리고 키퍼 장갑은 리아남이 착용했다. 홈장 첫 승이 절실했던 연변팀은 3명 용병을 동시에 기용하고 리세빈이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했다. 특히 이날 동가림 대신 키퍼 장갑을 낀 리아남이 골문을 지켰다.

시작부터 기세가 매서웠다. 석가장팀이 라인을 올려 공격을 전개하는 데 맞서 반격을 펼친 연변팀은 시작 3분 내에 로난과 한광휘가 각각 위협적인 슈팅을 때리며 분위기를 올렸다. 이후에도 연변팀의 파상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경기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성공하며 주도권을 가져왔다. 최전방의 로난을 필두로 중앙의 이보와 랑 변선의 아블레다와 리세빈이 동시에 앞으로 쇄도하며 연변팀은 석가장팀의 수비 공간을 수차 뒤흔들었



왕박호의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도운 이보의 맹활약

다. 골망을 가를 기회만 엿보던 와중에 13분경, 아블레다가 부상 증세를 보이며 그라운드에 복귀하지 못했고 왕박호가 교체 출전했다.

초반의 밀물공세가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변팀은 전진 패스를 연결해 간간히 골문을 두드리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석가장팀도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며 신경전을 펼쳤다.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지만 추가 시간 4분까지 전반전

선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후반전에 연변팀은 리봉으로 리세빈을 교체하며 시작했다. 밀고 들어가며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연변팀은 석가장팀의 수비를 뚫을 묘책 찾기에 나섰다. 57분경에 리호걸을 빼고 리강을 투입하며 분위기를 쇄신도 꾀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전술 배치가 주효한 듯, 교체 카드를 꺼내들자마자 58분경에 드디어 연변팀의 첫 골이 작렬했다. 이보와 왕박호의 합작골이

터졌던 것이다. 상대팀의 밀집 수비와 밀착 수비를 따돌린 이보가 문전으로 칼같은 패스를 찔러줬고 함께 돌파하던 왕박호가 정확하게 패스를 받아 수비수들을 따돌리며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다. 침착하고도 로련하게 문대 중앙을 모조했고 공은 시원하게 석가장팀의 골망을 흔들었다.

1대0으로 앞서며 기세가 오른 연변팀은 64분경에 한광휘 대신 어린 선수 현지건을 투입시키며 홈장 첫 승을 향한 승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한풀 뒀던 석가장팀의 조급함에 반해 연변팀은 공수 전환의 속도를 높이며 추가골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일일일 공격포인트를 주고받으며 추가 시간 7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오갔지만 추가골은 없었고 연변팀은 선제골을 지켜내며 드디어 홈장 첫 승을 쏘아올리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날 연변팀 홈장은 역시 '마귀홍장'답게 만명이 넘는 1만 4,826명의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우뢰와 같은 응원 함성으로 기세를 북돋아주었다.

홈장 승전고를 울린 연변팀은 승점 3점을 챙겨가지고 대련으로 원정을 떠났다. 상승 분위기를 타고 4월 21일에 대련영박팀과 제 7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특독 관전평]

'미완의 완성' 연변팀, 홈장 축포 이어 상승세 타자



제 6라운드 석가장공부팀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연변팀 선수들이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다. / 김파기자

1만 4,826명 관중 앞에서 승리

의 축포를 쏘았다.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석가장공부팀을 안방에 불러들인 연변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강팀을 만나면 강해지는' 속성을 고집해내며 기어이 홈장 첫 승을 쏘아올리고야 말았다.

4월 13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 6라운드 대 석가장공부팀과의 경기에서 연변팀은 지난

제 5라운드 중경동량룡정팀과의 경기에서 선보인 전술과 달리 4-2-3-1 전형을 기용했다. 3명 용병이 동시에 출격한 가운데 을 시즌에 영입한 풀키퍼 리아남을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켜 골문을 지키게 했고 측면에서 돌파가 돋보이는 리세빈 역시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했다. 선발 진영에서 승리에 대한 절실함이 읽혔다.

역시나 연변팀은 시작부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초반 탐색전 없이 밀물공세를 퍼부으며 상대의 수비 공간을 거세게 휘저어 놓았다. 지난 대 중경동량룡정전에서 슈팅 5회 (유효 슈팅 2회)에 그쳤던 수치에 비해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슈팅 12회 (유효 슈팅 7회)를 기록하며 석가장팀의 슈팅 9회 (유효 슈팅 2회)를 크게 앞섰다.

/ 김가혜기자

것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출전한 용병 아블레다가 13분도 안돼 부상으로 퇴장하며 류달리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다. 그래도 아블레다와 교체 출전한 왕박호가 58분경에 터뜨린 이날 경기의 유일한 골에 힘입어 연변팀은 홈장 첫 승을 거둘 수 있었다. 아쉬움 속 위안이 됐던 결승골이다. 특히 왕박호는 본인 프로리그 생애 데뷔골을 수확하며 공격포인트를 쌓아올렸다.

더우기 한풀 뒀던 석가장팀이 동점골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총공세를 펼쳤고 마지막까지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지만 연변팀은 항상 문제점이 되던 후반전 집중력 부족을 타파하며 끝까지 승리를 지켜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홈장승을 거두며 웃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문 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완의 완성이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 하지만 미완이라 함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변화하고 노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리그는 길고 아직 6라운드를 달려왔을 뿐이다. 미완일 때 상승의 여지가 더 넓어진다.

장춘아태, 성도용성에 1:2 석패



장춘아태가 추가 시간 연속 실점

으로 상대에 2골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했다. 4월 14일, 중국 슈퍼리그 제 6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장춘아태팀 (이하 '장춘팀')은 홈장에서 성도용성팀 (이하 '성도팀')과 맞붙었다. 근황이 좋지 않은 장춘팀은 홈장에서 성도팀을 '제물'로 승리 사냥에 나섰다.

이번 경기에서 진양 감독은 조이, 베리치, 길레르메 3인조 용병 조합을 내세웠고 청년팀에서 발탁된 젊은 수비수 하일연도 처음 선발 진영에 들어갔다.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친 장춘팀은 전반전 12분경, 용병 길레르메가 담룡의 도움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분위기를 뒀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실력 차이를 보이던 장춘팀은 점차 홈장 주도권을 상대팀에게 빼앗기고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로 경기를 이어가야만 했다. 전반전 성도팀의 빨 위 유희는 60%에 달했지만 리그 2 위 강팀을 상대로 장춘팀은 강한 투지를 불사르며 용케도 골문을 내주지 않았다.

후반전 52분경, 장춘팀 용병 베리치의 감각적인 슈트로 성도팀을 주저앉힐 수 있었지만 아쉽게 골대에 맞고 말았다.

이후, 장춘팀은 승리를 확정했지만 형세가 뒤바뀐 건 추가 시간 5분 경기였다. 성도팀 용병 펠리페가 골문 바로 앞에서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처리한 다음 오버헤드킥을 꽂아넣으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 골은 성도팀의 투지를 불러일으켰고 선수들은 싸움수록 더욱 강해졌다.

2분 뒤, 장춘팀 베리치가 반칙으로 두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고 실상가상으로 추가 시간 12분경에 장춘팀 풀키퍼가 몸을 날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땔 수 없게 되었다. 장춘팀은 이미 3번의 교체 기회를 다 썼기 때문에 9대 11로 싸워서 경기에 처한 장춘팀은 하일연을 위기 풀키퍼로 전향해야 했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팀 위세호가 헤딩슛을 성공시키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결국 장춘팀은 홈에서 또 한번의 역전패를 당하며 리그 4련패의 쓴맛을 보았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류향희기자

김봉길 감독 "승리의 공은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4월 13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석가장공부팀을 1대0으로 격파하고 시즌 첫 홈장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팀 김봉길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수비가 흔들렸기에 오늘 경기는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왔다. 선수들이 전술 배치를 잘 따라주었다."고 평하면서 "경기를 시작하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당했는데 그럼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서 승리한 것 같다."고 선수들을 높이 칭찬했다.

이어 모든 공은 선수들에게 돌려주

고 싶다고 말하면서 "제가 연변팀에 온 후 홈장에서 한경기도 지지 않았는데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선수 교체에 대해 말하자면 전반전에 리세빈선수가 부상당하여 후반전에 교체하게 되었고 후반전에 교체된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석가장공부팀 양꼬비치 감독은 "연변 팀 당지 기후와 경기장 잔디 상태를 고려해 먼거리 패스를 위주로 하였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전반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최우수선수에 연변룡정팀 왕박호가 당선되었다. / 김파기자